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③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일 시 : 9월 6일(목) 14: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427-1)

주 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참 석 자
14:00~14:05	인 사 말	남윤인순_국회의원

※ 좌 장 : 엄규숙_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14:05~14:30	주제 발표	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4:30~15:30	패널 토론	이 옥_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남정_서울시보육정보센터 센터장 백정현_성북구영유아플라자 센터장 박인숙_시소와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정영화_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 대표 오재욱_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15:00~16:00	종합토론	

목 차

- ▶ 주제발표 7
 - 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토론문 1 47
 - 이 옥_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 토론문 2 53
 - 이남정_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 ▶ 토론문 3 61
 - 백정현_성북구영유아플라자 센터장

- ▶ 토론문 4 69
 - 박인숙_시소와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 ▶ 토론문 5 77
 - 정영화_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 대표

- ▶ 토론문 6 83
 - 오재욱_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주제 발표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방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방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안현미_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시작하는 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제1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2012.07.10), 제2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2012.08.24)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음. 제3회는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문을 열고자 함.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2004년 저출산 대응전략으로서 제기되었지만 최근 구체적으로 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쏠림현상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부각됨. 그래서 정부는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시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일시 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이미 제2회 토론회 주제로 논의가 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넘어서서 다양한 육아지원 즉,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아이돌보미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포괄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하지만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무상보육 이후 막대한 재정 소요,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인한 보육재정의 증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할당은 미진한 가운데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미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임. 결국,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기관보육, 가정 내 양육, 육아지원 인프라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논의되어야 할 뿐아니라 정책의 우선 순위,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따른 쟁점을 정리하고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쏠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인 만큼 총체적인 육아지원 인프라가 아닌 영유아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그리고 이미 제2회 토론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중 기관보육을 제외한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임

2.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배경 및 쟁점

1) 육아지원 인프라의 개념 및 정책 범위

- 육아지원정책의 등장은 과거 기관중심의 공식 보육·교육 즉,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이 갖는 선별지원과 영유아자녀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함.
- ‘보육’은 과거 ‘탁아’ 즉, ‘말아서 기르다’라는 개념에서 ‘보육(Educare)’ 즉, 말아서 돌보는 것(Care)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맞게 교육(Education)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함.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영유아(0~만5세) 중 어린이집 이용자만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에 국한됨. 유아교육정책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만3~만5세) 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국한됨.

-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이라는 인구사회학적 문제 지속으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국정과제에서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방안’ 보고를 통해 총체적인 육아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보육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등장함(한유미, 2006:24).
- 특히, 육아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인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불가능성, 여성의 육아로 인한 고용지속성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또한 내포함(신윤정.이지혜, 2009; 구명숙.홍상욱, 2005; 류연규, 2005; 한유미, 2006)
- 육아지원정책의 확충은 대상범위, 서비스 공급주체, 관할부처, 공급기관 등의 혼재 등으로 모호함. 예를 들면, ‘방과후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재원은 보육재정, 담당자는 자치구 보육담당자임. 최근 ‘방과후 교육’이 확산되면서 엄마품온종일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서비스임.
- 육아지원정책은 좁게는 공식 기관보육.교육 즉, 보육서비스, 유아교육, 방과후 지원정책(한유미, 2006)에서 넓게는 공식기관보육 이외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형태 지원, 가족친화기업 등과 같은 일.가족양립지원정책, 양육수당, 세제지원 등을 포괄한 개념(신윤정.이지혜, 2009)까지 정책 스펙트럼이 폭넓음.
- 그 가운데 육아지원 인프라는 육아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또는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포괄범위는 정책 목적에 따라 상이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을 목표로 한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취약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지속 확충 둘째, 민간 육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개선 셋째,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넷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다섯째,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여섯째,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임. 즉,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 및 제반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함.

- 본 글에서는 글의 목적상 기관보육 이외에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관 및 제반여건에 대한 분석

2) 다양한 선택지 없는 무상보육으로 기관보육 쏠림

- 최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배경에는 ‘기관보육’이라는 유일무이한 선택지만을 두고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보육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재정 고갈의 문제로 정책 후퇴론이 거론됨. 이는 정책 발달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일가족양립 욕구 증가, 사회 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등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익(political interest)’에 기반한 상위하달식(top-down) 정책결정 구조의 맹점을 드러내 주는 결정적 사건임.



- 선진국(프랑스, 영국 등)은 유아중심의 무상보육 및 보육시간 일부를 무상화하는 방안을 실시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영아중심의 기관 보육 이용에 대한 무상보육은 육아지원 욕구가 높은 맞벌이, 일하는 한부모 가구 이외에도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가구마저도 모두 기관보육으로 쏠리게 됨. 이러한 소득 및 근로여부와 무관한 0~2세 무상보육은 첫째, 교육투자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 둘째,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임(서문희, 2012).
-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쏠림은 기관보육 서비스만을 무상화한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임.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파견제도(경기도), 서울시의 경우 영유아플라자 등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만 가능한 것임.
-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또한 시간제 보육은 25개 자치구 전 어린이집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소(신규2개소 포함)만이 실시하고 있고, 1자치구 1개소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안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지만 영유아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고 영유아 발달에 맞는 환경구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한계점을 안고 있음.
- 경기도의 ‘보육교사 파견 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이외에도 높은 부모 부담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있어서 접근성 문제가 야기됨.

3) 육아지원 정책 예산 할당의 효율성 및 분배의 우선순위

(1) 보육 예산의 상쇄효과

- 무상보육의 막대한 소요예산은 기관보육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미침. 2012년 보육예산은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함. 증가요인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23.6% 증가, 지방보육정보센터 17개소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 105.6% 증가,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 238.9% 등임. 반면, 전년대비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은 오히려 19%, 보육인프라 구축 5.4% 감소함.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2012년 총예산의 0.4%에 불과함.
- 결국, 보육사업의 총괄 예산 구조는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다하더라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욕구가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한 예산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대한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대안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분리 할당하는 방법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금’과 같은 목적성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임
-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이상 확충을 위해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서울시비 부담을 최대 90%까지 지원 결정, 추진함. 서울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민관연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2012년 80개소 확충을 위한 890억원 예산 확보를 넘어서서 2012년 현재 총 95개소¹⁾, 773억원 지원 결정이 이루어져 목표 달성을 초과함(황요한, 2012).

- 이러한 서울시의 적극적 의지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예산 분리, 기금화 등과 같은 제도화는 필요함.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결과, 중앙정부의 당초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보다 지원예산이 높아지는 경우 지원을 미루는 책임회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표 1 2012년 보육사업 예산 및 증감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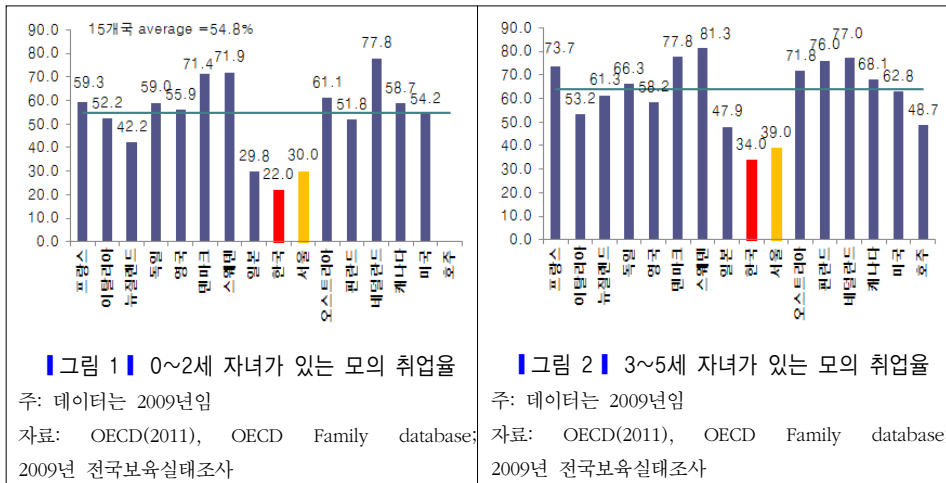
구분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감	비율	비고
계	2,478,380	3,028,567	550,187	22.2	
어린이집 운영지원	395,023	423,153	28,130	7.1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4,611	2,391,291	456,680	23.6	
어린이집 기능보강	14,650	11,867	-2,783	-19.0	신축 국공립1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
보육인프라구축	16,250	15,377	-873	-5.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17개소) 105.6% 증감
어린이집 평가인증	4,975	6,026	1,051	21.1	13,120개소
어린이집 지원	23,077	78,207	55,130	238.9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등 공공형어린이집 1000개소 122.2% 증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9,794	102,646	12,852	14.3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출처: 보건복지부(2012)

1) 민관연대 36개소, 공공기관 공동주택 32개소, 매입 및 신축 6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 11개소 등 총 95개소 확충

(2) 육아지원 방식: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vs 양육수당

- 다음으로 육아지원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쟁점은 서비스 지원방식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과 현금 지원방식의 양육수당 확대임. 요약하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따른 서비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임.
 -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 설치 또는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 자녀의 일시보육 지원, 지역사회 내 돌봄공동체 확산 등의 다양한 육아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서 기관보육 쓸림현상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하지만 그 대상이 기관보육 이용자가 아닌 미이용자의 가구인데 정부가 양육수당 대상을 현 저소득층에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중복수급의 문제 또는 제한된 예산에 따른 상쇄효과가 발생하게됨.
- 육아지원 방식의 쟁점은 일차적으로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방식과 여성의 취업률간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것임. 특히,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취업률이 OECD 15개국 평균 54.8%보다 매우 낮은 한국 22.0% (서울시 30.0%)이고, 3~5세 자녀가 있는 모의 취업률은 OECD 평균 63.9%에 비해 한국 34.0%(서울시 39.0%)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아지원 급여 형태는 매우 첨예한 논쟁이 됨.



- 양육수당이 여성 고용율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Morel, 2007; Rummery, 2010; Blau & Robins, 1989; 김수정, 2006)와 양육수당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급여수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주장도 있음.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높은 양육수당을 지급하자 공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수당을 받고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 머물렀지만 1995년 양육수당이 20%이상 삭감되자 부모들은 일과 양육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함(Sipila & Korpine, 1998; OECD, 2001: 145). 그리고 Jenson & Jacobzone(2000: 35~36)에 따르면 양육수당과 여성의 노동시장 단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양육수당의 급여액이 낮고 가족관계내에서 수당을 매개로 고용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임.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노동시간과 같은 객관적 크기, 사회적 돌봄노동 지원제도의 취약 조건 등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 또한, 고용형태가 파트타임이거나 임금이 낮거나 낮아질 확률이 높으면 여성은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임(Nyeberg, 2010:69). 하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1~2살 자녀를 둔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단기적으로 3~5%의 감소율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결과를 통해서(Rønsen, 2009:510)²⁾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즉,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지속이 가능한 육아지원정책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양민석·서영주·안현미외, 2012).

- 양육수당과 서비스 공급방식 간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임. 보육기관 뿐 아니라 보육·교육비용의 많은 부문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것임. 안상훈 연구(2006)³⁾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 국가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국가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임. 특히, 한국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이외에도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 및 사교육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 결국, 육아지원 예산 분배 효율성에 따른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방향은 기관보육 확충이외에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당과 같은 현금방식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선택지를 다양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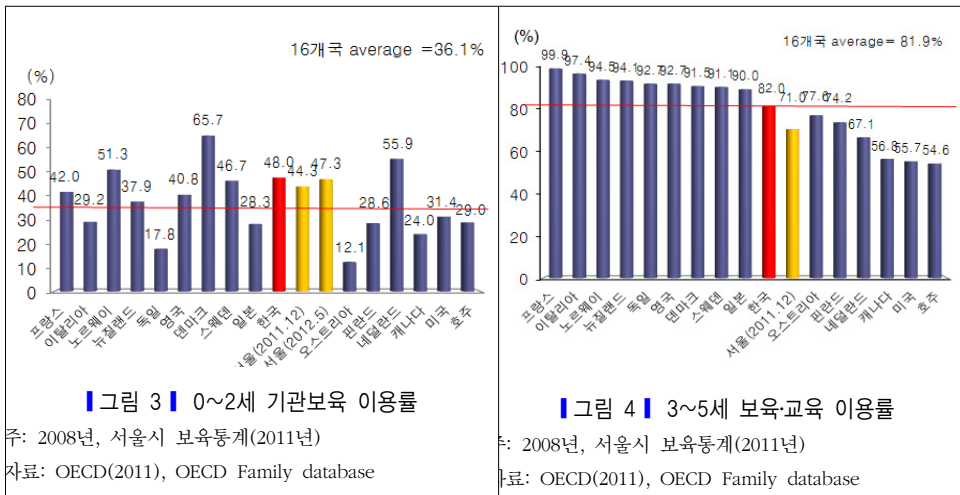
2) Håkonsen et al.(2001) 양육수당 도입 이후 장기적 노동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간 18%가 감소한다고 함(Rønsen, 2009:510 재인용)

3) 현금이전형 프로그램은 연금보험, 상병보험 등 사회보험, 아동수당과 같은 데모그란트, 소득최하층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이 포함되고,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은 돌봄문제(양로/육아), 교육문제, 주거문제, 고용문제, 보건의료문제,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로서 수혜자를 기준으로 최종 전달되는 욕구해결기제가 유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3. 무상보육 이후 보육 환경 및 변화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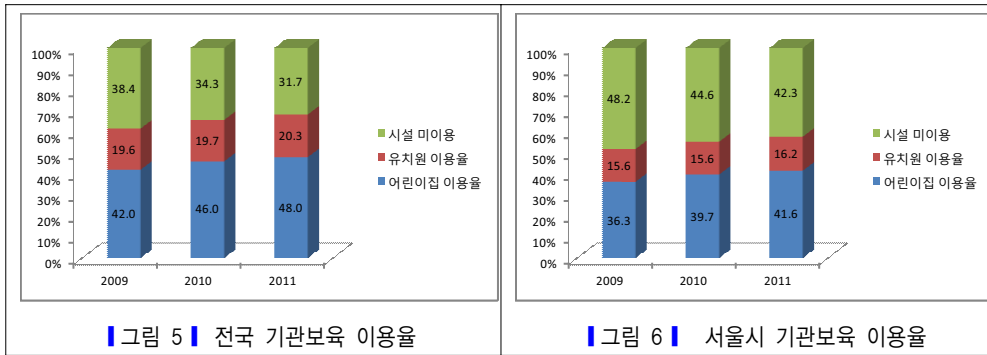
1) 기관보육 이용 증가 추이와 지속적인 예산 증가

○ OECD 국가의 공식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0~2세 이용률의 경우 16개국 평균 36.1%보다 높은 전국 48.0%, 서울시 44.3%임.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서울시 영아 기관보육 이용율은 47.3%로 16개국 중 4위 수준으로 급상승함. 반면 3~5세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16개국 평균 81.9%에 못 미치고 전국 보다 서울시 기준은 더욱 낮음.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47.6%), 유치원(40.3%)과 같은 공식보육·교육 이외에도 특기 및 보습학원(12.5%) 등과 같은 비공식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임(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대도시 기준).



4) 이 장은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양민석·서영주·안현미외, 2012)에서 발췌, 일부 수정한 것임

- 구체적으로 전국, 서울시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징적인 점은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비율이 2011년 전국 31.7%에 비해 서울시가 42.3%로 높음.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도시 특성상 기관보육 이외에 비공식 기관 이용(사설학원) 또는 아이돌보미와 같은 직접 양육 방법을 선택할 자원이 지방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임.



- 서울시 0~5세 영유아 중 기관보육(어린이집+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2,766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8,985명인 41.6%, 유치원 이용아동 수는 81,203명인 16.2%로 총 57.8%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가정내 양육은 212,578명으로 42.3%임.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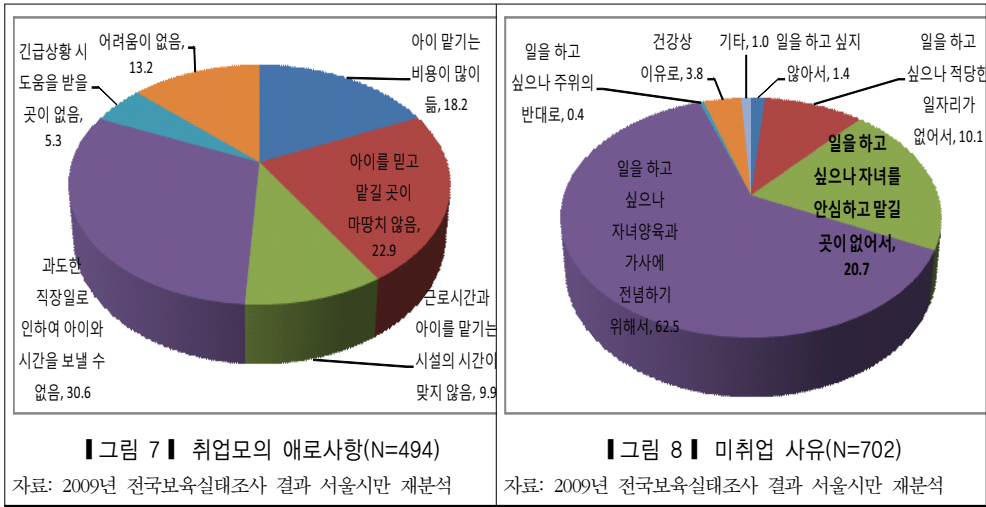
표 2 기관보육(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이용 현황

(단위: 명, %)

연령	0	1	2	소계	3	4	5	소계	합계	
전국	총 영유아수	451,579	470,224	445,437	1,367,240	466,807	494,388	448,774	1,409,969	2,777,209
	어린이집	146,666 32.5%	249,787 53.1%	342,879 77.0%	739,332 54.1%	272,034 58.3%	182,999 37.0%	137,349 30.6%	592,382 42.0%	1,331,714 48.0%
	유치원					133,986 28.7%	196,602 39.8%	233,724 52.1%	564,312 40.0%	564,312 20.3%
	기관미이용	304,913 67.5%	220,437 46.9%	102,558 23.0%	627,908 45.9%	60,787 13.0%	114,787 23.2%	77,701 17.3%	253,275 18.0%	881,183 31.7%
서울시	총 영유아수	84,538	86,961	80,452	251,951	83,876	87,332	79,607	250,815	502,766
	어린이집	19,948 23.6%	37,978 43.7%	53,569 66.6%	111,495 44.3%	43,095 51.4%	30,698 35.2%	23,697 29.8%	97,490 38.9%	208,985 41.6%
	유치원					20,759 24.7%	28,722 32.9%	31,722 39.8%	81,203 32.4%	81,203 16.2%
	기관미이용	64,590 76.4%	48,983 56.3%	26,883 33.4%	140,456 55.7%	20,022 23.9%	27,912 32.0%	24,188 30.4%	72,122 28.8%	212,578 42.3%

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1), 한국교육통계(2011)

- 기관보육 이외에도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42.3%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취업모의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과도한 직장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30.6%),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2.9%), 아이 맡기는 비용 부담 (18.2%)등이라는 것임(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 학부모의 미취업 사유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함(62.5%),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0.7%),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10.1%) 등임.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전체 39,84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116개소로 5%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05개소 중 국공립은 658개소로 11%에 불과함. 이용아동 수는 전국의 경우 어린이집 총 이용 아동 중 1,348,729명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3,035명으로 11%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총 이용 아동 214,863명 중 51,249명인 24%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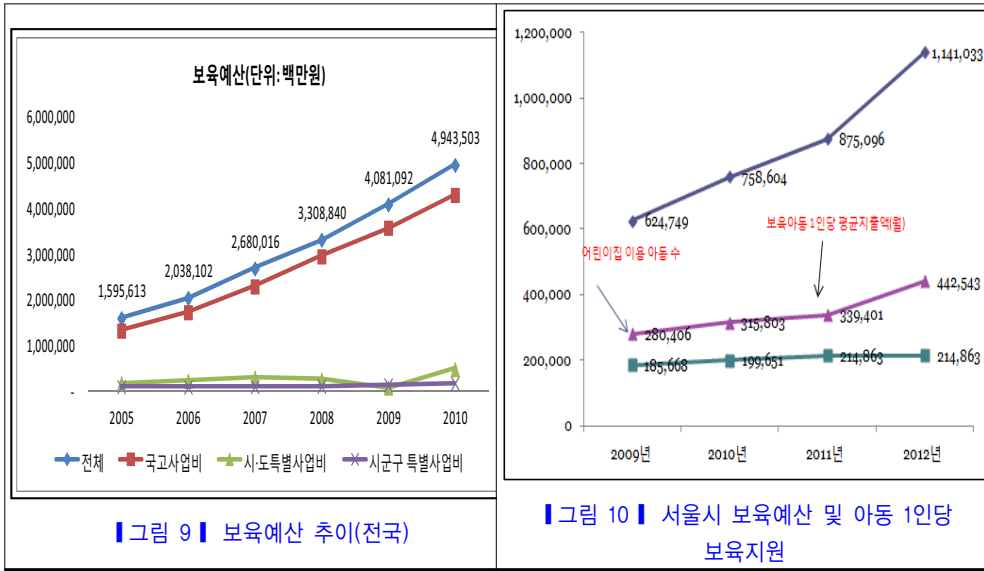
【 표 3 】 전국 대비 서울시 보육현황(2011년)

(단위: 개소, %, 명)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합계
기관 수	서울시(A)	658 11%	43 1%	2,488 41%	2,766 45%	24 0.1%	126 2%	6,105 100%
	전국(B)	2,116 5%	1,462 4%	15,004 38%	20,722 52%	89 0%	449 1%	39,842 100%
	B/A	31.1	2.9	16.6	13.3	27.0	28.1	15.3
이용 아동 수	서울시(A)	51,294 24%	2,539 1%	112,967 53%	40,664 19%	617 0.1%	6,782 3%	214,863 100%
	전국(B)	143,035 11%	112,688 8%	757,323 56%	308,410 23%	2,286 0.1%	24,987 2%	1,348,729 100%
	B/A	35.9	2.3	14.9	13.2	27.0	27.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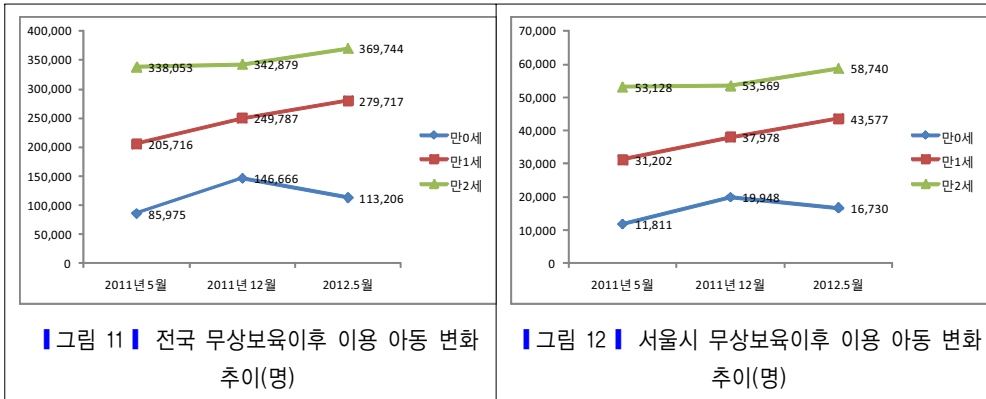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보육통계), 서울시(보육통계)

-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불균형적 공급구조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290개소, 서울시 40개소 증가한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5,197개소, 서울시 475개소로 급속한 증가를 보임으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가정어린이집은 더욱 증가함.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및 보육료 지원확대는 보육재정 증가율을 가속화함. 서울시 보육 총 예산은 2009년 6,247억원에서 2012년 1조 1,410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 시비부담은 2,861억원에서 6,669억원으로 2.3배 증가함. 이러한 시비 증가율은 2011년 보육재정 세출을 기준으로 볼 때 국비:시비:구비=29%:48%:23%로 높은 시비 부담으로 이루어짐.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2009년 28만원에서 2012년 44만원으로 1.6배 증가함.
- 서울시의 경우 높은 시비부담 요인은 보육료 대상 확대(차상위 120%→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70%) 및 시비부담 증가(40%→42%), 2009년 서울형어린이집 실시,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때문임.



2)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환경 변화

- 무상보육 실시 이후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현상 심화됨. 전국의 경우 2011년 12월 대비 2012년 5월 현재 0~2세 아동은 23,335명 증가함. 전년 동일시점 기준 비교 결과, 1세 36%, 0세 31.7%, 2세 9.4% 순으로 증가함.
-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는 111,495명(2011.12월 기준)에서 2012년 5월 119,047명으로 5개월 사이 7,552명 증가로 전국 증가 아동의 32.4%에 해당됨. 특징적인 것은 0세 아동은 3,218명이나 감소한 반면 1세 5,599명, 2세 아동 5,171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임.



- 2011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2년 기관보육 이용 아동 증가율을 추계 하면 0~2세 이용 아동은 5월 말 현재 119,047명 보다 16%인 19,048명이 더 추가 이용하여 총 138,056명에 다다를 예정임.

■ 표 4 ■ 0~2세 영아 이용아동 전년도, 동일시점 비교 추이

(단위: 명, %)

시도명	연령별	2011년 5월말(A)	2011년 12월 말(B)	2012년 5월말(C)	증가 인원		증가율	
					C-A	C-B	C/C-A	A/B-A
전국	소계	629,744	739,332	762,667	132,923	23,335	21.1	17.4
	만0세	85,975	146,666	113,206	27,231	-33,460	31.7	70.6
	만1세	205,716	249,787	279,717	74,001	29,930	36.0	21.4
	만2세	338,053	342,879	369,744	31,691	26,865	9.4	1.4
서울 특별 시	소 계	96,141	111,495	119,047	22,906	7,552	23.8	16.0
	만0세	11,811	19,948	16,730	4,919	-3,218	41.6	68.9
	만1세	31,202	37,978	43,577	12,375	5,599	39.7	21.7
	만2세	53,128	53,569	58,740	5,612	5,171	10.6	0.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1년 4,594억원(정부지원대상아동 보육료+기본보육료)에서 2012년 8,726억원으로 4,132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며 무상보육의 영향으로 이용아동 수, 예산 모두 이보다

더 증가할 것임. 하지만 무상보육 실시 5개월만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후퇴론이 제기되고 있어 예측이 불가능함.

【 표 5 】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소요예산 추이(서울시)

(단위: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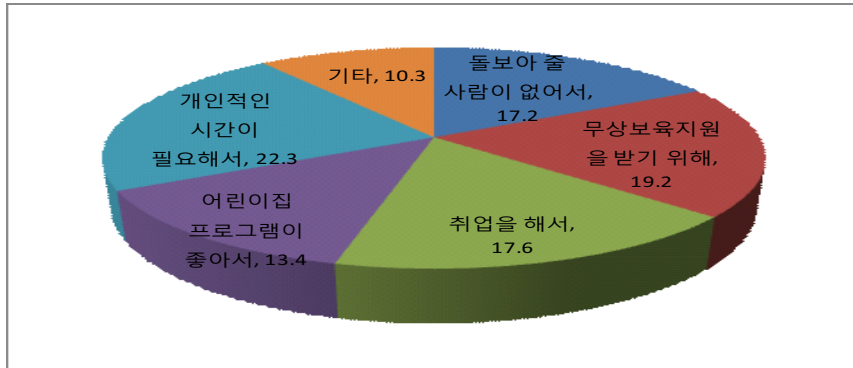
무상보육이전 (2011년 12월 기준)					무상보육이후(2012년 12월 추계)			
연령	현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수	기본 보육료지원 아동수	소요예산(천)	연령	이용아동수	보육료	소요예산(천)
0세	19,948	13,282	18,344	142,263,504	0세	28,256	755	255,998,151
1세	37,978	22,710	30,350	157,935,240	1세	53,040	521	331,608,730
2세	53,569	29,753	41,348	159,172,536	2세	59,228	401	285,003,132
합계	111,495	65,745	90,042	459,371,280	합계	140,524		872,610,013

주: 2012년 이용 아동수=2012년 5월말 이용아동 수+ 2012년 6~12월 이용 아동수 추계
(2011년 5월에서 12월 증가율을 토대로 추계)

3) 가정 내 양육자의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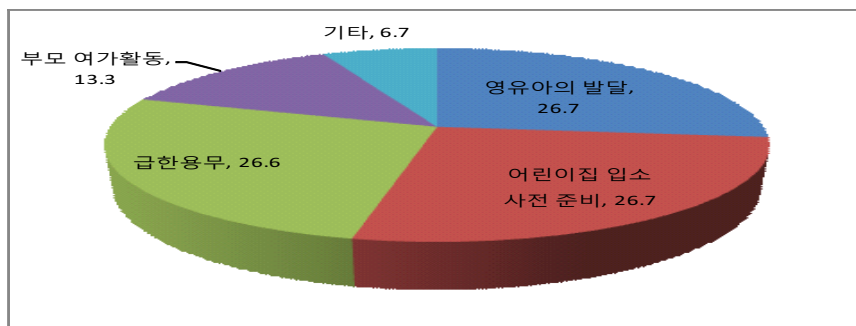
-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신청’ 했는지 여부를 조사⁵⁾한 결과 ‘예’라는 응답이 236명(51.3%), ‘아니오’라는 응답이 224명(48.7%) 이었음. 신청을 하고자 한 이유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22.3%, ‘무상보육지원을 받기위해서’ 19.2%, ‘취업을 해서’ 17.6%로 나타남.

5) 이 조사는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로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 및 장남감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 중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유아플라자 시설이 개원되지 않은 중구, 강북구, 그리고 조사실시가 어려웠던 서대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영유아플라자, 장남감도서관 25개 기관에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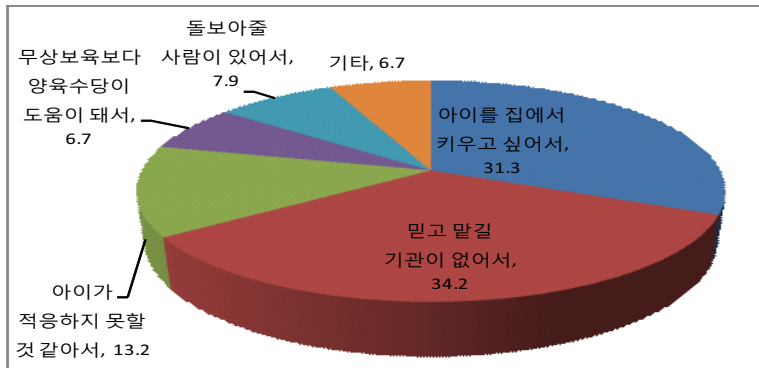
(그림 13)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한 이유(중복응답 N=236)

- 이러한 조사와 더불어 OO구에서 실시한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영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어린이집 사전 경험을 위해서’, ‘급한 용무 때문’인 경우가 26.7%로 높았고, 부모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13.3% 차지함.



(그림 14) OO구 영유아플라자 시간제보육 만족도 조사 결과(2011년)

- 그리고,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믿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 34.2%,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가 31.3%로 응답이 집중됨.



(그림 15)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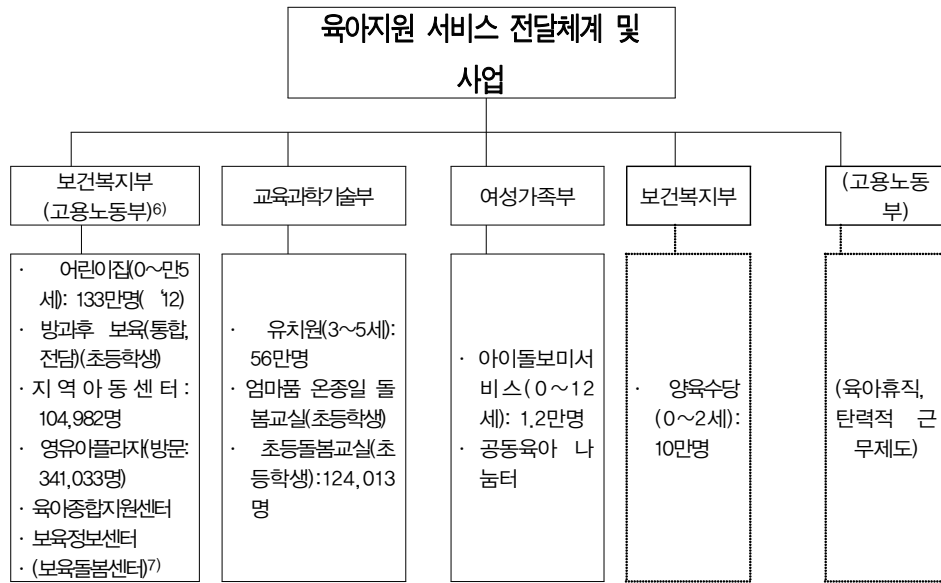
- 요약하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하더라도 모두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보육에 대한 신뢰성 문제 해결과 긴급지원 또는 일시보육 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4. 육아지원 인프라의 특성과 다양성

- 기관보육 이외에 육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식화 할 경우 아래<그림 9>와 같음. 육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담당부처에 따른 구별 이외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크게 기관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 가정내 양육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 영유아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내 양육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미취학, 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지원 체계라고 볼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아지원 인프라 이외에 비영리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시소와그네),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있음.

6)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주체에 해당함

그림 16 육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업



주: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0~만5세(1,331,714명)이지만 만6세 이상 아동 17,015명도 이용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2), 한국교육통계(2011)

이러한 육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음.

1) 방과후 보육.교육: 재원과 서비스 대상의 부적정성 및 비효율성

- 방과후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이며 재원 또한 보육재정에 의해 이루어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어린이집 또는 전담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됨. 그리고 방과후 교사 또한 보육교사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지도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안고 있음.
- 특히, 무상보육 이후 기관보육 쏠림현상에 대한 이용자 가구의 특성을

7) 보육돌봄센터는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육아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면 종로구의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목적은 대학로에서 연극·영화 등을 관람하는 여성을 위해 공연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공간으로, 24개월 이상~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됨.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인 혜화어린이집의 전문 보육교사가 맡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음(1회 이용 시 2000원).

고려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방과후 통합, 전담교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과거 초등학교 내 방과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초등돌봄교실 또는 엄마품 온종일교실 등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현 방과후 통합, 전담시설 이용자의 이동이 가능함.⁸⁾
- 방과후 통합 어린이집은 추가 영유아를 충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전담교실은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시간제 보육 등의 일시 보육 또는 부모와 함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음.⁹⁾



■그림 20 ■ 프랑스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



■그림 21 ■ 00구 영유아 플라자

○ 적용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양민석, 안현미, 서영주, 2012).

- 첫째, 방과후 통합 및 전담교실 이용 아동 및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과

8)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방과후학교는 확대하고 방과후통합어린이집은 축소한다는 방향으로 2007년 1월부터 확충은 중단하며 자연적 감소로 줄이는 방향임. 또한 2012년 5월 방과후교실에 대한 재원은 현 보육재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환 입법 예고됨

9) 프랑스의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은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은 1시간-중일반까지 다양하게 운용되고 최대 정원은 60명임(단, 부모협동으로 운영되는 곳: 20-25명). 대상자는 부모가 일을 하지 않지만, 자녀를 몇 시간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함

정을 토대로 추진: 정부지원시설이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필요.

- 둘째, 어린이집의 전환가능성 낮음(1개반~3개반):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가능성 보다는 시간제 보육(일시) 또는 돌봄공동체 등과 같은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전환 모색이 적절하다고 봄(리모델링 필요).
- 셋째, 초등돌봄교실의 추가공급의 가능성: 2011년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시 전체 학급 교실 수의 2.8%에 불과함.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수요파악과 방과후 통합 및 전담교실의 전환에 따른 필요공급량을 제시, 확충 필요성 검토

표 6 초등돌봄교실 현황(2011년)

	실시 학교	교실 수	학생수
서울시 전체	591	19,993	535,948
초등돌봄 실시 수	445(75.3%)	569실 (2.8%)	10,485명
엄마품 온종일서비스	191개교+유치원 23개소		

학년	비율 (%)
1학년	50.4
2학년	36.8
3학년	9.5
4학년	1.9
5학년	0.9
6학년	0.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1)

- 넷째, 현재 방과후전담교실에 대한 보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무상보육 이후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확충에 대한 부처간 협의 필요
-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초등돌봄교실 또는 온종일엄마품교실에서 포괄할 경우 필요 수: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이집 4,619명 → 필요교실 수(1실 20명 기준) 231실 필요(필요 수요).
이에 따른 확충방안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충 기준: 서울시 전 초등학교 “1개교 2 초등돌봄교실” 전면화 - 현 초등돌봄교실 실시 초등학교 499개교 추가 364실 확충 실시하지 않고 있는 92개교 184실 확충 총 548실 10,960명 이용 가능
--

2) 아이돌보미 : 동일사업의 이질성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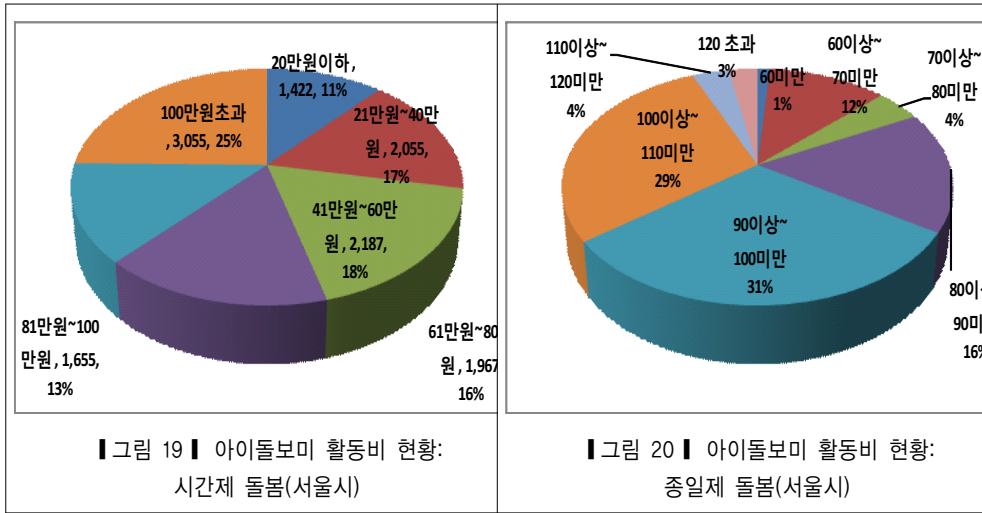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저렴한 육아지원서비스를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제공하는 것임.
- 2011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시간제 돌봄 이용가정은 주로 지원율이 높은 가형이 44.5%로 가장 높고, 맞벌이 가구가 41.2%, 만1세 이하가 35.2%로 1순위를 차지함. 이러한 결과는 종일제 돌봄 이용가정도 동일함.

【표 7】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유형별 현황 (2012)

구 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대 상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비스 희망 가정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구			
	①산전후 휴가 만료시점 등 고려하여 서비스제공 생후 3개월 이내도 가능 ②비취업 일반가정도 이용 가능				①비 취업모 경우도 예외적으로 서비스 지원 실시: 다자녀 가구 (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아동 2명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②보육시설입소 어려운 경우 24개월까지 가능			
지원기준 (4인가구 월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19만원)	50~70% (307만원)	70~100% (439만원)	초과	40% (215만원)	40~50% (293만원)	50~60% (376만원)	초과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원	원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가형	나형	다형	초과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용가정 사전방문 및 상담조사	가정의 양육환경, 양육시 특이사항, 아동의 신체발육 및 영양상태, 정서적 발달상태, 예방접종 및 병력사항, 돌보미 역할, 응급처치위임 등				좌동 (시간제 돌봄이용 준용)			
서비스 내용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보조, 등하교(원) 등				이유식, 젓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대기시간, 친절성, 시간준수, 안전돌봄, 불편 사항 여부 등 만족도)				전화모니터링 : 월1회 이상 활동상황 : 매월1회 돌보미 현장 불시점검			
지원시간 ※ 이용요금 일부지원	1가정당 연 480시간(월40시간) 원칙 가정유형에 따라 연 240~960시간 가능 ① 취업준비, 교육, 긴급한 양육공백시 연 간 240시간내에서 서비스 지원 ② 맞벌이, 취업한부모 생계활동으로 양육공 백가정, 다자녀가구, 장애부모 등 960시 간까지 지원가능 ③ 지원시간 초과사용시 “라” 형으로 이용 가능 (1시간당 5천원, 전액 본인부담)				1가정당 월 200시간 이용기준 월 120(기본) ~ 240시간(초과)까지 가능 ① 월 240시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라” 형 이용요금을 적용 (1시간당 5천원, 전액 본인부담)			

- 아이돌보미 이용 사유는 맞벌이 가구의 직장근무로 인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67.9%로 가장 높음. 또한 어린이집 이용 이후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이용시간도 2시간 이용이 34.3%로 높았음.
- 아이돌보미의 처우 및 활동비는 시간제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제의 경우 주로 100만원 초과가 25%로 가장 높고, 종일제의 경우 90만원~100만원 미만이 31%, 100만~110만원미만 29% 순으로 나타남.



-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한계점은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실습시간 미흡, 낮은 처우 및 4대보험 배제 그리고 고용불안정 문제 등임.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부재 등이 제기됨(FGI 결과).

(2) 비영리단체 아이돌보미 사업

- 비영리단체의 가정 내 육아지원인력 파견 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저소득 가구에 개별보육서비스 제공기회를 제공함.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처럼,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호응도도 높음.
 - 비영리단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YMCA 아가야사업, YWCA 아기돌보논이 사업, OO여성단체 가정보육사 등이 있음.
 -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대비 비영리단체에 의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시사점은 충분한 실습교육 시간, 월급제를 통한 처우보장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임(FGI 결과).

【 표 8 】 비영리단체 육아지원인력 서비스 제공 현황

구 분	비영리기관 서비스 제공		
	YMCA 아가야	YWCA 아기돌보이	OO여성단체 가정보육사
대 상	4개월~12세	3개월 ~12개월	0~12세
활동도우미	30명	230명	21명
프로그램	보호와 놀이중심	보호와 놀이중심	보호와 놀이중심
시간	종일제 (하루4시간이상)	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장소	별도시설 아이의 집	아이의 집	아이의 집
이용자	일반	일반	일반
요금	4시간: 50만원 시간당 10만원 추가	월100만원	4시간 :30천원 8시간 :55천원
이용시간	9~18시(월~금)	9시~ 18시(월~금)	9시~ 17시(월~금)
사회보장	배상보험(단체)	배상보험(개인)	배상보험(개인)
자격기준	없음	없음	없음
교육	양성 : 60시간 (실습12시간 별도) 보수 : 월 1회	양성 : 40시간 보수: 월1회 2년마다 심화교육	양성: 40시간 보수: 월1회
기타	회원제 운영 가입비 : 2만원 양성교육비: 10만원 교육실사:1년4회	회원제 운영 연회비:3만원 양성교육비:10만원 보수교육비: 2만원	가사추가 가능 (청소, 빨래, 반찬) (추가비용 월10만원) 회원제 운영 연회비 :5만원 교육비: 안받음 가정보육사 회원가입후 : 월3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수요 대비 예산 부족 · 어린이집하원 이후 수요급 증: 사각지대 5시이후) ·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의 업무과중 · 비전문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현장 활용성 결여: 효과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미적용 · 제한된 공급(지리적 제한)으로 수요 불충분 ·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 이후에는 적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에 무료로 가정보육사를 파견→ 지원 종료 이후 사업 중단 지역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자체 예산 확보 등의 방법으로 운영 중
향후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커리 및 실습의 다양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적용 필요 · 교육체계개선 · 아이돌보미와 중복되는 과목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베이비시터에 대한 기본교육은 공통으로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사 임금 안정화 (4대보험포함) · 영아나 장애아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가정보육사 파견 필요. · 가정보육사 파견제 또는 단순 돌봄을 넘어서서 사례관리, 통합적 가족지원 및 가정의 임파워먼트가 가능한 체계 필요

구 분	비영리기관 서비스 제공		
	YMCA 아가야	YWCA 아기돌보는이	OO여성단체 가정보육사
		각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 · 국가자격증도입이 필요하고, 그게 어려우면 지자체별로 지정교육기관이 있으면 좋겠음 · 유료알선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비영리단체에 의한 아이돌보미 모두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및 고용안정 문제가 야기됨.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돌보미간 1:1계약으로 문제 발생시 개별적 책임의 형태는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통합운영상의 한계점

(1) 영유아 플라자

- 영유아플라자는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음(2012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 영유아플라자는 2004년 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5개 자치구 1개소씩 설치 완료됨.
-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 총 운영비(인건비포함)

개소당 1억5천5백만원 지원.¹⁰⁾ 재원 분담은 시비:구비 = 50%:50%(종사자인건비 75,668천원, 운영비 79,500천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서대문구, 종로구의 경우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짐. 영유아플라자 인력 구성은 센터장1인+운영 요원 2명으로 이루어짐. 단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 기설치시설에 통합운영함.

【표 9】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예산 및 이용자 수

예산				운영인력	이용자 수
	합계	시비	구비	88명 (정규 48, 보조 40)	341,033명
광진구 외	152,932	76,466(50.0)	76,466(50.0)		
서대문구	235,847	76,466(32.4)	159,381(67.6)		
종로구	220,358	76,466(34.7)	143,892(65.3)		

- 영유아플라자 주요기능은 정보제공, 육아카페, 교육기능, 체험학습, 상담기능, 시간제 보육등임. 영유아플라자 이용자 수는 2011년 34만명으로 1개소 당 평균 14,800명임. 영유아플라자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장난감 대여사업임.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13개 영유아플라자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수는 총 4,258명으로 개소당 평균 328명임. 2명의 운영요원이 14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임 (어린이집의 2세아동 1:7 비율과 동일)
- 서울시 23개 영유아플라자 중 2011년 말 기준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13개소이며, 2012년 추가로 2개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15개소로 확대됨.

10)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는 통폐합 동청사 활용시 건축비 10억원, 그 외 기능보강비는 1억6천만원임(2012년 보육사업 안내)

표 10 영유아플라자 운영실적(2011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유아 용품 대여	시간제 보육	육아 상담	기부코너 운영
16개소	18개소	9개소	13개소	18개소	12개소
-	227,389점	2,055점	4,258명	9,499건	2,017점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1)

-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는 환경조건에 따라 규모와 성격이 다양함. 영유아플라자나 육아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곳도 있지만,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일반 방문아동의 놀이체험공간에서 시간제보육을 함께 운영하기도 함.



그림 21 영유아플라자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유형

- 영유아플라자의 장점: 시간제보육을 비롯하여 놀이체험관 및 장난감대여사업,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지역 내 거점형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유리함.
 - 그래서 무상보육 인한 기관보육 쏠림을 영유아플라자 확충 및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토대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음.
- 영유아플라자 운영상 한계점
 - 첫째, 1차치구 1개소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 유희공간, 유관기관 등

을 활용한 추가 영유아플라자 확충이 필요함.

- 둘째,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내 영유아플라자가 통합되거나 통합 시설로 인하여, 기능과 목적이 상이한 두 기관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어 (보육정보센터는 2011년 운영규정이 만들어짐) 기관에 따라 분리, 통합 운영되거나 시간제 보육만 분리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짐. 그 이면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또한 자치구마다 역할 등이 상이하였음.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예산상의 문제 즉, 보육정보센터는 대부분 구비 사업이며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있고, 영유아플라자는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와 구가 50%씩 분담하고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 사업을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임. 또 다른 문제는 자치구 담당자의 인식, 예산 지원 등의 한계가 있음.

- 셋째, 영유아플라자 인력에 대한 임면, 관리 기준이 보육정보센터 보육 교직원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유아플라자 인력은 운영요원,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전문요원으로 자격과 지위가 상이하야 보육전문요원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함께 활용하고 있고, 추가 인건비(수당, 호봉)는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지원 또는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곳도 있음. 특히,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운영요원 자격으로 경력 불인정, 낮은 보수 등의 문제로 인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움.
- 넷째, 25개구 중 15개구만이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어 공간상의 문제가 아닌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시간제 보육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시간제 보육으로 인한 전담인력 부재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전담인력 구성이 필요함. 또한 장난감도서관(대여사업)을 최소화하고 시간제보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보육정보센터

-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공”(2012년 보육사업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하지만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사업 내용이 상이하고 영유아플라자 사업 내용과 중첩(예: 상담, 부모교육 등)되는 프로그램도 있음

【 표 11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사업 성과(2011년)

보육정보센터 기능(운영규정)	현황(기관수)	OO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보육정보실운영/보육정보지발간 15 홈페이지 운영 5 문화활동 및 홍보 10 시스템 운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경력)교사교육 •전문교사교육(애착증진) •안전교육(굿네이버스 포함) •장애아교사교육 •급식위생 및 영양교육 •영상아카데미교사교육(강사: 직원) •표준보육과정교사교육 •시설장 회계, 노무교육 •평가인증지표교육 •보육시설 컨설팅 •평가인증방문조력 (비예산), •서울형방문조력 및 자율장학 •20인미만영양위생순회지원 •순회영양위생교육, •장애아보육시설순회지원 •특수교사, 치료사 파견 •건강식단제공 및 영양정보지 발송 (비예산) •장애아 통합편지발송 •보육, 육아활동교재보급
임산출산건강 등 다양한 보육정보의 육아 토 달서비스 제공		
보육도서관(on line/off line) 운영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운영	시군구 연계사업 1 산학연계멘토링1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문화 공연 4 놀이강좌1	
장애아보육,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육아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9 육아 지원 6 장애아 통합보육4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 대여, 부모강좌 등)	부모교육 16 장난감도서관 6 상담사업 6 노을터운영 1 가족체험나눔사업1 체험놀이실1 요리교실 2 아이사랑방 1	
지역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3 평가인증조력 18 서울형 자율장학 5 표준보육 과정교육 9 보육시설 지원사업 2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중사자전문성향상교육 11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성화사업 2 취약계층중재서비스 2 건강생활증진 4 행복나눔프로젝트 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 4 영유아돌보미센터 1 유아프로그램1 보육콜센터1 예체능교육1 맞춤형생태교육1 위원회운영1 안전교육 12	•부모교육(직장맘, 부모코칭 외)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통합 또는 분리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임.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가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는데는 적정인력 부족의 문제가 큼. 보육정보센터 인력구성이 25개 자치구 최소 4명부터 최대 16명까지 상이함. 심지어는 영유아플라자 인원을 제외하면 한 명인 곳도 있었음. 또는 인력은 많지만 계약직 인력,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으로 실제 상근인력은 소수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음. 그런데 1 자치구에 1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내 어린이집과 가정내 양육 아동 모두 대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반면, 모범사례로는 기존 공간상 시간제 보육 공간이 열악하여 다른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공간확보를 한 자치구도 있었음. 또 다른 영유아플라자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시간제 보육을 요일제로 하고 상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재편하는 방안을 취하기도 하였음.

〈표 12〉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유형

유형	A형: 혼합형(미분리)	B형 업무 분리형	C형: 공간분리형
특징	<p>특징: 영플, 보육정보센터 통합운영 -보육정보센터는 인건비만 지원, 영플은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통합운영 장점 단점: 성격이 상이한 영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어려움</p> <p>OO구: 센터장1인+영플인원2명+정보센터1명 OO구: 분리안됨. 센터장1, 전문요원3, 전산인력1, 관리인1, 구 지원인력(공공근로, 일용직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OO구: 보육전문요원 수당 지급 구에서 추가 지원. 요일제 시간제보육실시 효과가 높은 특정사업에 집중(상담)</p>	<p>OO구: 재정, 인력 업무 엄격한 분리</p>	<p>사례1(OO): 분리된 공간이 아닌 체험실에서 시간제 보육 실시에 따른 실효성문제, 서비스 질 발생=> 추가 공간(구민회관) 확보 및 시간제 보육 실시. 전담인력 투입</p>

- 결국, 영유아플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그 대안으로는
 - 첫째, 두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 운영, 자원, 인력 임면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 확립하는 것임.
 - 둘째, 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 인력 배치 및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보육교사 선정 및 경력 인정 제도화 필요
 - 넷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자치구 1개소를 넘어선 공공기관, 방과후 전담교실, 주택(전세) 등의 기능전환 및 확충이 필요함(영유아플라자 1개소당 4~5개 동 이용-FGI 결과)

〈표 13〉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기능 정립(안)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핵심사업: 기관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교육: 일반교육(보수교육, 회계교육, 인성교육 등)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특수교육: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교육, 직무향상 교육 및 자율장학 - 조력: 평가인증, 안심보육 등, - 특성화 지원	핵심사업: 가정 내 돌봄 지원 사업 - 시간제 보육 - 파견 돌봄 지원사업(취약계층, 조부모 가구, 장애부모가 있는 가구 등) - 건강 및 발달 관리 관련 사업
공통사업: 부모교육, 맞춤형보육(취약계층지원, 장애아동 지원, 다문화 아동 지원 등)	공통사업: 부모교육, 맞춤형보육(취약계층지원, 장애아동 지원, 다문화 아동 지원 등)
정보 수집 및 평가(만족도) : 기관보육 이용자(학부모) 대상	정보 수집 및 평가(만족도) : 가정내 돌봄자 대상

- 영유아플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기준이 필요함. 예를 들면 무상 보육이후 기관보육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arget Group 선정 및 운영규정 마련 필요

1안	2안
영아, 유아 모두 시간제 보육 활용 가능한 경우 영아, 유아 환경 구성 및 교사 배치 기준 검토(예: 영아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유아 1:5~7명)	유아만 시간제 보육 활용(18개월~36개월 미만) :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마련(1:5~7)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요인: 공간 확보 어려움 영아 돌봄 어려움	장애요인: 현 4시간 운영 제한 여부 간식 미 제공 문제

4)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모델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모델화 가능성

- 강남구의 육아지원센터는 구 중점사업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능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접근성을 최대화한 장점을 지님. 앞서 제기한 영유아플라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 육아지원종합센터 설치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하지만 기능을 단순화 하는 대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상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어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인터넷, 팸플릿을 활용한 선택 및 배달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표 14 】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 별	명 칭	규 모	시설 현황	특징
강남구	대치동 육아지원센터	320㎡	장난감 대여 및 자유놀이실 활동실 및 수유실, 상담실	전문상담 가능 (상담전문가 상주)
	논현동 육아지원센터	152㎡	장난감 대여 및 자유놀이실 시간제보육	놀이실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
	개포동 육아지원센터	183㎡	장난감 대여 및 자유놀이실 부모카페 및 상담실, 놀이프로그램, 센터방문프로그램	생태적 환경자원을 활용한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 실시
	삼성동 육아지원센터	206㎡	자유놀이실, 상담실 활동실 및 부모카페, 시간제보육	장난감 대여하지 않고 자유놀이실 2개 특화 (지역어린이집에서 활용)

5. 맺는 말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논쟁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보편주의는 시민권적 차원에서 복지급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념 하에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실현을 추구하는 배분을 의미하며 보육서비스 또한 시민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하지만 보편주의와 ‘무상’은 다른 맥락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은 대립적 할당원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칙 내 선별주의”로 차별적인 욕구에 근거한 자원 할당의 방향 모색이 필요함(윤홍식, 2011).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 보육정책 및 체계 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입소 우선순위, 지배적인 민간어린이집 구조,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오늘 다루었던 주제와 같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검토는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내 양육아동 중 긴급, 일시보육, 또는 구직활동 중인 가구의 자녀와 육아지원의 사각지대(토요일, 일요일, 야간 보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첫째, 기관보육 이외 일시·긴급보육의 욕구를 지닌 가구와 돌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실현 하고자 함. 둘째, 최근 양육수당 확대 추진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OECD 국가들 중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할 때 현금지원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갖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적인 확산은 필요하며 지역형·맞춤형 돌봄지원 기관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음. 단, 영유아플라자 운영상 안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의 기능,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보육 전문요원) 투입 및 경력인정, 지역사회 이용 욕구에 맞는 환경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체계 확립 후 전국 확산이 필요함.
-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수요자 파악 및 지역 유관기관 파악이 선행되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한국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 구명숙·홍상욱. 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31-546.
- 김수정. 2006.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한국가족학회지. 제18집 4호 (2006년 겨울) pp.1-33.
- 류연규. 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사업 안내.
- 서문희 2012.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신운정·이지혜. 2009.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9-34-2.
-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

- 적 서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2006. 11. pp. 21-49.
- 양민석.서영주.안현미.임영미.윤상미. 2012 미발간.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한유미. 2006. 육아지원정책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방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23-37.
- 황요한. 2012.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Blau, D. M. & Robins, P. K.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 pp. 287~300.
- Jenson & Jacobzone. 2000. Care allowances for the frail elderly and their impact on women care-givers. *OECD working papers ; v.8, no. 40*
- Morel, M.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18-637.
- Nyberg, Anita. 2010. "Cash-for-Childcare Schemes in Sweden: History, Political Contradictions and Recent Developments." in Jorma Sipilä5, Katja Repo, and Tapio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 OECD. 2011. OECD Family database.
- Rønsen, Marit. 2009. "Long-term Effects of Cash for Childcare on Mother's Labour Supply." *Labour* 23: 507~533.
- Rummery, K. 2010. "A Comparative Discussion of the Gender Implications of Cash-for-care Schemes: Markets, Independence and Social Citizenship in Choice?" pp. 94-108. in *Choice: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the European Welfare State*, edited by B. Greve. Oxford: Blacksell.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1

이 옥_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2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현황 및 문제점

이남정_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남정_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급변하는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육아과 교육의 문제는 현재 가장 당면한 과제이며 개인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는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원고를 기반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의 육아지원 기능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

1. 보육정보센터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및 시행령 제 12조, 17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지방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201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육아지원
-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대여, 부모강좌 등)
- 지역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지원
- **보육도서관(on line/off line) 운영**
-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중앙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관련 상담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t 운영
- 대체교사 인력 관리. 운영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의 지원 외에도 일반 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보육도서관(on line/off line),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운영,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에게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육아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행정1부시장 방침(보육분야 창의시정사업, 2007. 7. 11.)으로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였다. 자치구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내, 통폐합되는 동·청사 활용, 또는 신규 건립한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25개구에 모두 설치되었고 25개 자치구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영유아플라자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별도 기관이라기보다 사실상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기능을 특화하고 강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특성 및 문제점

1) 전문성과 다양성

서울시 영유아플라자는 보육관련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영유아의 질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양육의 모델과 육아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 놀이관련 프로그램, 양육 상담,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육아카페, 가족지원, 문화공연,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2) 구성 체계

영유아플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와 공간이나 재정, 운영주체가 혼용되어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표1>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구성 체계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 치 근거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 행정1부시장 방침 제 401호 (2007.7.11.) 보육분야 창의시정사업
인력구성 및 자격	- 상근 직원 4인 이상 - 센터장 자격기준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전문요원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또는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 이후 석사학위자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	- 센터장 1인, 운영요원 2인 - 운영요원은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계약직 운영요원으로 공개 채용하며, 보육정보센터의 보육교직원 임면, 관리를 준용
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직원 기준, 사업내용, 지원 내용, 회계 및 물품관리, 장부 비치 등의 기준이 명시됨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주요시설, 주요 기능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원관리에서 센터장에 대한 기준은 언급되지 않고 회계, 물품, 장부 관리는 보육정보센터의 관리를 준용함.

<표1>에서 보다시피 영유아플라자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준용하거나 그 보다 약한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3) 재정

영유아플라자의 재정을 시도 보육정보센터,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재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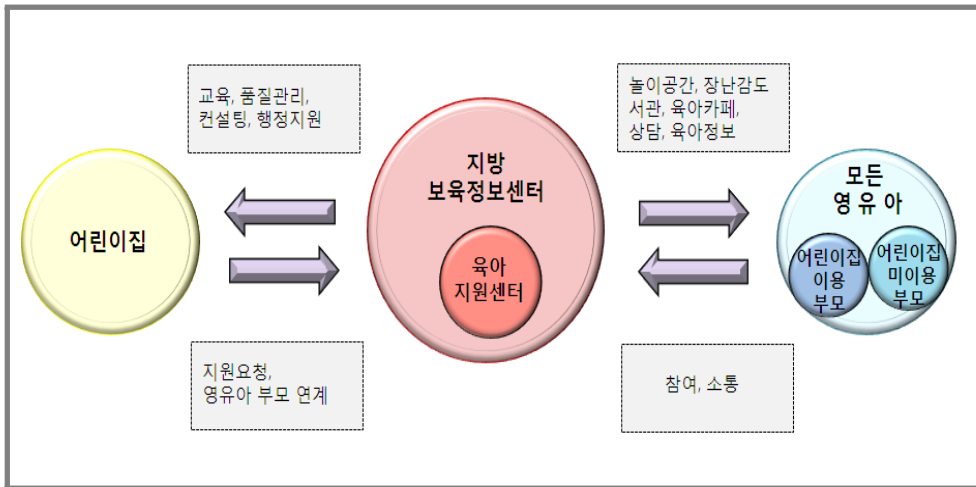
구분	시·도 보육정보센터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100%	- 시비 50% 구비 50%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당 국비지원액 : 173,000천원(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서울시는 별도) 예시) 00시보육정보센터 국비 173,000천원 + 지방비 173,000천원 = 346,000천원 - 운영비, 사업비, 직원 인건비(사용자 부담금 포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자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원 79,5000천원 - 사업비, 기능보강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포함 ▶ 인건비 지원 75,668천원 (센터장 1, 운영요원 2) 계 : 155,168천원
인건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정보센터장 - 센터 예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전문(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 기준을 적용하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2013년부터 적용 원칙) - 2) 보육정보센터직원 -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보육정보센터보조원면, 리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장 - 서울시 계약직 "나급" 기준 2) 운영요원 - 보육교사 3호봉 기준 ※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처우개선비 등 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부족한 재정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요원의 인력을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요원을 갖춘 자로 선발할 수 없어 운영요원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운영요원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영유아플라자의 예산 지원에서 센터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보육정보센터장인건비에 해당하는 명시이다. 이러한 모호성이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 간의 업무 혼용 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3. 보육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언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울의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12.7 / 201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3>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도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와 유사 개념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운영

본 토론자도 이 모델에 적극 동의하며 서울시 영유아플라자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개선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몇 가지 더 보완하여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에 준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도 가능할 것이며 직원들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예산에서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산정이 필요하다. 운영요원들의 전문성 보장과 기존 보육정보센터에 더 기능과 사업이 강화되고 확장되는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고려이다. 육아지원은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인접한 근거리 위치가 필요한데 시, 군, 구 별로 하나씩 설치되는 것은 근접성의 문제가 염려된다. 발제자의 의견처럼 강남구 영유아플라자의 모델을 참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점차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넷째,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정은 제시하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해주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망의 구조에서 각 지역적 특색과 센터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보장되기를 바란다.

본 토론자도 발제자의 의견처럼 현 정책의 문제로 육아지원이 기관중심의 쏠림 현상과 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상을 염려하며 육아지원정책이 보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기 위해 더 총체적인 접근이 되길 바란다.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3

**성북구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의 육아지원사업
소개 및 활성화 방안**

백정현_성북구영유아플라자 센터장

성북구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의 육아지원사업 소개 및 활성화 방안

▶ 백정현_성북구영유아플라자 센터장

성북구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는 ‘행복한 육아, 즐거운 놀이, 희망찬 미래’를 모토로 2007년 7월 1일 개소하였다.


2012년 현재 회원 수는 25,353명이며, 2012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전일 운영을 확대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의 일반현황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일반현황

소재지	건축규모	대지면적	비고
하월곡동 222-6	지하1층/지상3층(1397.67㎡)	664㎡	월곡4동 폐지 동청사 활용

● 주요 시설현황

층 별	주 요 시 설	전 경
지하1층(393.67㎡)	세미나실, 주차장(6면)	
지상1층(317.51㎡)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책놀이방, 수유실	
지상2층(398.35㎡)	놀이체험장, 육아카페, 다목적놀이실, 수유실, 보육정보센터, 육아상담실	
지상3층(288.14㎡)	다목적 강당	
옥 상	야외 창의놀이터	
계 1,397.67㎡		

● **인력현황**

계	센터장	서무	보육 전문요원	전산 원	시설 직	운영 요원	특수 교사	대체 교사	환경 미화
32	1	1	6	1	1	6	1	13	2

● **주요사업**

육아지원사업		보육시설지원사업 (보육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난감 대여사업 책 대여사업 (동화구연/스토리텔링) 시간제보육 '도토리 교실' 운영 놀이체험장 운영(3회차) 부모교육(대/소) 소그룹 부모교육 '맘모아' 육아상담(전문가상담) 녹색장터(부모 장터/연 2회) 육아지원 종합상담창구 운영 (동 주민센터, 구청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문화강좌 (8~10개 강좌 운영) 아이조아 가족행사 (5월 어린이날 축제, 겨울축제) 대관사업(쿠링룸,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대체교사 파견사업 (3일 이내, 긴급 / 5일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어린이집 상담(교사, 원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 컨설팅 (행복한 아이들)

현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장난감대여, 책대여, 시간제 보육, 놀이체험장이며 2011년과 2012년의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현황분석 및 실태**

1) 육아지원 주요 사업 운영현황

구분	운영시간	이용료	사업내용
장난감 대여	09:00~18:00 (월~토)	500원~ 5,000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 대여수량 : 1가족 2점
책 대여	9:00~18:00 (월~토)	무 료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대여수량 : 1가족 6권
시간제보육	09:30~18:00 (월~토)	시간당 3,000원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놀이체험장	1회차 10:00~12:0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	1인 2,000원	역할·조작·신체·만들기 등 월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 놀이 지원

2) 이용자 현황

■ 2개년 주요 사업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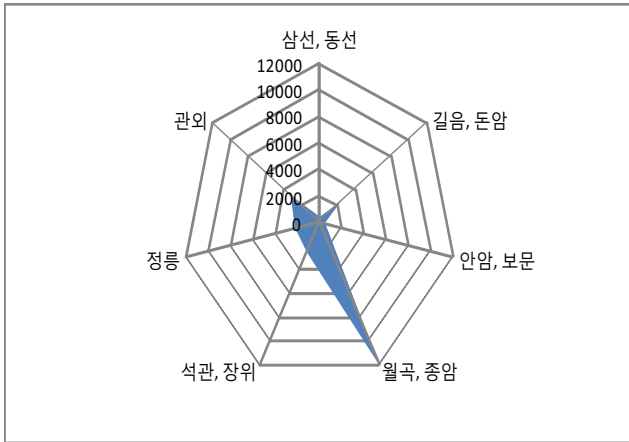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2년	29,430	3,893	4,081	3,450	3,160	2,948	3,093	4,395	4,410
2011년	31,613	3,674	3,904	3,728	3,773	3,748	3,673	4,252	4,861
증감	-2,183	219	177	-278	-613	-800	-580	143	-451

■ 지역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관 내							관 외
		소계	삼선,동선	길음,돈암	안암,보문	월곡,중앙	석관,장위	정릉	
이용자	23,234	19,992	401	2424	479	11,595	2,499	2,230	3,242
(백분율)	100	86.0	1.7	10.4	2.1	49.9	10.8	9.6	14.0





- 2개년간 육아지원 주요사업 이용자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2,183명이 감소. 가장 큰 감소 원인은 책대여 사업으로 2,149명 실적이 감소하였음. 인근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2곳이 개관하면서 이용자의 이동이 주 원인으로 파악됨. 전년대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 책 대여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놀이체험장은 1회차는 보육시설 단체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2, 3회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및 시설개선 필요함.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되는 3월부터 이용자 급격히 감소
- 2011년 대비 장난감대여는 7,038→7227명으로 189명 증가하였음
장난감 대여 활성화를 위해 중고 장난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신규 장난감 확충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시간제 이용은 473명→727명으로 255명 증가하였음.
시간제보육 1일 평균이용자는 4명이며, 1명의 아이가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임.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등이 더욱 필요함.
- 지역별 이용자현황을 살펴보면, 아이조아 인근 월곡·종암이 51%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삼선·성북, 안암·보문 등 지역 주민의 이용은 현저히 낮음.

● 2012년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중점 추진방향

1)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중심의 영유아플라자 분소 확충(제안)

○ 아이조아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삼선·성북, 안암·보문, 길음·돈암 등 지역주민의 육아복지를 위한 분소 건립이 필요함.

2) 놀이체험장 신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 개관 4년차인 2012년도에는 기존 놀이시설 외 영유아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학습 터치스크린을 신규로 설치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놀이체험을 제공함.

○ 3~6세 대상의 아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및 기존에 운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놀이체험을 제공하여 기존고객을 위한 참신함 제공

3) 탄력적이며 내실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간제보육 대상을 확대하여 시간제 보육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 아동 연령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간제보육을 활성화시킴

4) 수요층 요구분석에 따른 장난감, 책 확충

○ 이용도가 높은 조작·탐색, 신체·승용, 자동차 등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장난감 구입 및 도서는 동화 등 전집류, 수·과학 및 신간 도서 위주로 구입

○ 책대여 이용자 확보를 위해 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동화구연, 영어 스토리텔링, 책 읽어주기 등) 제공

● 육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1) 서울시 25개구에 설치되어있는 영유아플라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봉, 마포, 강동, 동대문, 강남구는 영유아플라자(거점센터)와 분소(예: 장난감+시간제 등)로 운영하고 있다.

구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센터의 접근성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2) 2013년에 지급하게 되는 0~2세 양육수당 사용범위를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 사업 즉, 시간제 보육이나 놀이강좌,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재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서비스 대상자는 18개월 이상 영유아로 명시되어있다.

센터에서는 부모의 0~2세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 수용을 위해서는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을 위해 기본설비의 개보수가 필요하며, 전담인력 및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용과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유아플라자 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센터마다 특화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분포, 이용대상의 연령, 요구 등을 파악하여 개발한다.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4

박인숙_시소와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방안 보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박인숙_시소와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저출산 문제해결, 일·가정 양립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이에 가정내 양육지원과 부모 부재 시 대체할 수 있는 보육이라는 두 축이 함께 고려되고 지원되어야 함

- 따라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큼

□ 육아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대상의 명확화

-0~7세가 아동기의 연령선에 포함되기는 하나 미취학-취학 아동의 특성,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인력의 특성 등 차이가 커 이미 기존방식에 대한 재평가와 육아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함

- 한편 발제에서 제시된 육아지원서비스 외에도 사회복지적 접근 방식의 아동전달체계 또는 민간, 지자체 의지로 수행중인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어 미취학-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함

구분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추진 주체	시·도 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구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대상	저소득0~12세	저소득0~12세	저소득 0~7세	저소득 만3~14세 아동
재원조 달방식	시·도 지자체예산	국·시·구비	민간·시·구(전국5개 시·구 8개소 운영)	국·시·구
특징	취학아동 위주	취학아동 위주	미취학 아동전담	유아사업 축소 중

□ 양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육아지원 정책 중 직접서비스에 해당하는 인력파견 사업으로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저연령 영아나 보육시설 하원 후 발생하는 공백기에 양육을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 지역사회 양육지원기능 센터들의 상호 협력

- 발제자의 연구처럼 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위한 기능은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하고 영유아플라자 및 양육지원센터가 가정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과 인력파견형 사업을 담당하는 형태로의 기능 분화에 동의함
- 각종 정책과 제도의 발달, 여러 영역에서의 복지정책 수요에 따라 복지 관련 기관들은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보육관련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시설들이 확대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만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기능별로 특화하고 부족한 영역의 서비스들은 지역에 기 설치된 보육,복지 기관들이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

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함(시소와그네 센터의 가정방문 통합서비스, 이대성산복지관의 아이돌보미교실, 교복투 사업의 유아복지사 파견 등 지역의 육아지원기능 기관들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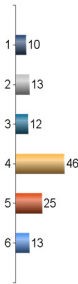
□ 가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보육-복지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 영유아 정책이 갖는 특수성은 영유아 당사자의 보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임. 가정내 보육의 주체나 가정의 기능강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함. 가정의 주 양육자가 취업 - 비취업, 보육시설 이용-미이용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시간동안 제공되는 양육의 질이 시설보육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시설보육 +시간제 돌봄 +영유아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모형이 구상되어야 함. 즉 보육과 복지를 통합하는 영유아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가정내 돌봄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양육능력강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이러한 훈련은 1~2시간 시설을 이용하거나 1회성 교육 등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정방문형 서비스, 보육-복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 개별 영유아와 가정에 따른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어 함

1. 아이의 즐거운 놀이터(12)
2. 적극적 사회적인 아이로 변화(9)
3. 부부,가족관계의 개선, 회복(8)
4. 양육에 대한 자신감 (아토피,새터민,장애아,아이와 소통)(40)
5. 강북 유일 양육 공동체 역할(17)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의 계기(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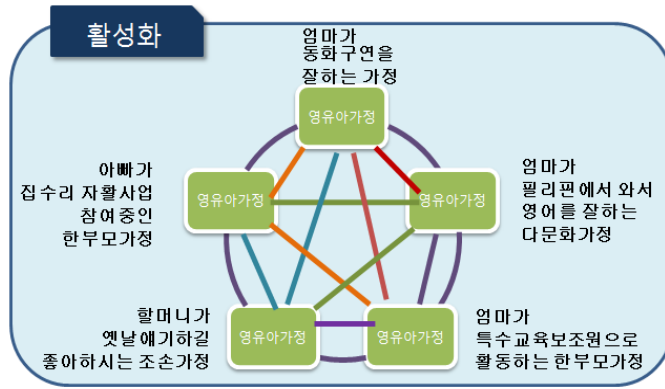
<가정방문통합사례관리 이용평가, 강북센터>

서비스명 (서비스 주기)	사업 효과
교육중재 서비스 (1년, 주1회)	모아 애착증진 양육태도 향상
통합사례 관리(연중)	양육에의 자신감 향상
지역연계형 부모교육	자존감, 양육태도 향상
양육품앗이	정보교류, 돌봄공 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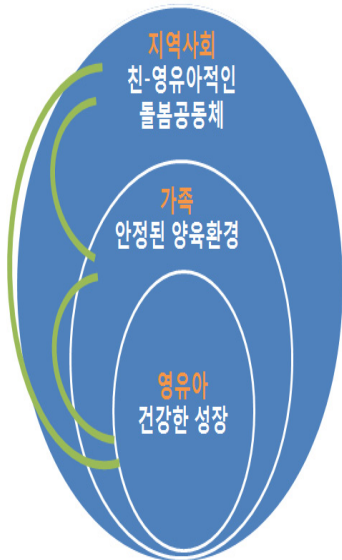
<가정방문 맞춤형 서비스 사례>

□ 지역사회의 돌봄기능 강화 및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적 육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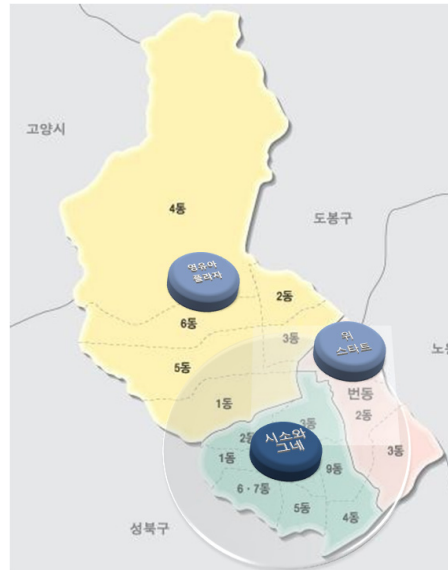
- 보육시설, 육아지원센터 등 영유아 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중요한 고려의 영역임에 분명함
- 다만 새로운 센터를 시.구에 신규 설치하는데 있어 예산 확보 등 운영 효율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음. 이데 신규 육아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하기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기관, 전문기관들이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연계/협력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 지역사회에 육아지원센터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보육,복지 관련 기관들과의 역할분담, 기능 분화를 통해 보다 네트워킹적이고 효율적인 방식과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강화시키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함



<가정간 상호돌봄활성화 모형, 마포센터>



<복합적 개입을 통한 다층적 영유아보호체계 구축>



<육아지원기능 센터 간 네트워크 방식>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5

부모와 아이 모두 즐거운 육아

정영화_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 대표

부모와 아이 모두 즐거운 육아

무지개육아사랑방
2009년-2010년까지

선생님과 함께



자연스런 부모교육 물감놀이와 전래놀이



엄마들과 함께 등그미짜기와 발맞사지



엄마도 배워요 동화구연과 옷만들기



사업추진의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 자체 평가

잘된 점

- ◆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주부들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육아사랑방의 모델을 보여준 점
- ◆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민들이 지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 이용자들이 구성된 품앗이운영위원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를 통한 부분적인 운영의 가능성 보여준 부분.

잘못된 점

- ◆ 홈페이지 대신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영아를 돌보는 주부들의 특성상 온라인사용이 열악하여 다양한 접촉을 갖지 못한 점.
- ◆ 부모교육 대상이 고정화되고, 더 확산되지 못한 점.

육아사랑방의 성과

- ◆ 이용자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살림을 파악하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 등 **나눔의 가능성** 보여줌. (벼룩시장의 이익금 일부후원, 성금모금, 물품나눔 등)
- ◆ 아이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남의 아이와 내아이를 함께 돌보면서 **자연스런 공동체성 체득**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줌.
- ◆ 품앗이를 통해 육아의 힘겨움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저출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줌.
- ◆ 이용자들이 강사로 활동 할 수 있게 되어 **주부들의 자립과 자아존중감** 높여 **즐거운 육아의 가능성**을 보여줌.
- ◆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를 돌보므로 **육아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주어 줌.
- ◆ 아이를 맡기고,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기회를 제공**.
- ◆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부들의 능력개발의 기회제공**

육아사랑방 활성화를 위한 대안-3



1.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운영

품앗이 등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 함께 이용하는 운영위원들이 좀 더 실질적인 자원 봉사활동을 하여 운영 상 애로사항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2. 운영비를 지급하여 거시적으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틀

육아사랑방을 통해 이용자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저출산 극복 뿐 아니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어린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쉽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배워가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치구나 국가에서 전체 운영비를 지급하여 거시적으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3. 보육교사-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지어 최소의 운영비 지원하는 방법

사랑방에서 함께 하는 보육교사를 관리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육아사랑방 형식의 공간이 자치구마다 곳곳에 경로당처럼 생겨나길 많은 주민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에 따른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공간을 찾거나, 기업의 한 공간에서 지원하여 만들면 가능하다고 본다.

교사(보육코디네이터)는 따로 양성과정을 거쳐 -사랑방에서 충분한 실무를 할 수 있게 2-3개월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후 재교육을 매달 정해진 날에 진행한다 하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지어 자치구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최소공간과 운영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토론문 6

오재욱_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otted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currently blank.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otted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It contains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질문지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질문지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